거룩을 향한 환골탈태

(레14:1~57)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4.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6.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7.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9.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룩을 향한 환골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거룩을 향한 환골탈태'

'환골탈태(換骨奪胎)'라는 말은 뼈를 바꾸는 것이고 아기가 들어있는 어머니의 자궁인 태(胎)를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환골(換骨)'이라고 하는 말은 도가에서 인간이 도를 닦거나 영단, 영험한 효력이 있는 약을 먹고 소골(범골),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부터 선골, 신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본래의 삶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정결예식으로 털을 다 깎고 물로 씻는다고 하는데 환골이라는 말 자체도 도를 닦거나 영단을 먹고 소골의 사람이 선골의 사람으로 바뀔 때 온 몸에 선골로서의 털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골이라는 말은

본래 도가에서 쓰는 말을 원용해서 어느 상황에 이 말을 썼느냐면 옛날의 고문서나 고전작품 속의 문장들을 가져다가 같은 의미가 변하지 않게 하면서 내 말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내 말로 바꾸어서 새로 쓴 문장이 본래의 문장보다 훨씬 더 훌륭할 때 환골했다고 말합니다. 뼈대를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탈태(奪胎)는 주로 환골이 산문형식의 문장을 내 언어로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탈태는 태(胎), 자궁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데 시문(詩文)에서 시문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시상이 떠오르면 그 시상을 가지고 시인이 시를 짓습니다. 그 시상이 떠오른 상태가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는 것으로 수정체가 자궁에 붙는 것을 착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시상이 떠오르는 하나의 개념이 시인의 마음속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개념을 concept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바뀌면 'conceive'가 되는데 '개념을 떠올리다'라고 하는 말인데 곧 '임신한다.'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이 다 통하지요. 시인은 시상을 잉태하고 시를 쓰는데 그 태를 빼앗아버리는 것으로 시상을 그대로 갖고 와서 내 나름대로 다른 시를 썼는데 똑같은 시상으로 썼어도 본래의 시보다 아름답게 쓰였을 때 바로 탈태했다고 하고 환골탈태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은 있는데 완전히 더 훌륭한 전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작품인 것처럼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좋게 개선이 되었을 때 우리는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 환골탈태의 얘기입니다. 나병환자가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다시금 진영 안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얘기하시는데, 이 나병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선민공동체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명하신 병명입니다. 참 의의가 깊지요. 그렇다면 왜 선민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법을 얘기하신 다음에 나병얘기를 하시고 또 나병에서 회복되는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임마누엘의 상태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영적인 상태, 즉 영적으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각오와 조처를 취할 수 있는데 아담타락이후 모든 인간은 저주의 상태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살고 있는 이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연인의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지금 자연인으로 생각하는 이 상태가 거룩함이 깨어지고 더러워진 저주의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선민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깨끗한 것이고 청결한 것이고 질서가 잡힌 것입니다. 더러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김칫독에 담거나 김치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옷장 서랍에 넣어둡니다. 옷을 옷장 서랍에 넣어야 하는데 김칫독 안에 김치와 함께 넣습니다. 옷도 김치도 깨끗하지만 놓이는 장소를 서로 제공하면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내 목숨, 내 인생전체, 내 일, 내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매김을 해주셨는데 내 뜻대로 해버리므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되니 내 삶 전체가 김치를 옷장 서랍에 넣는 것 같은 더러움이 발생하고 이렇게 내 삶이 거북살스러운 것입니다. 이 상태가 저주의 상태요, 원초적인 꿈의 궁전인 거룩함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병환자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의 자리인 하나님 뜻의 자궁 바깥에 던져지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타락으로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은총에로 부름을 받은, 거룩을 회복하도록 부름 받은 선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의 모습으로부터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이 환골탈태한 선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듯이 펼쳐보여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거룩이 깨어진 저주로 던져진 상태, 원초적 꿈의 궁전을 이탈한 상태, 나병환자와 같은 상태로부터 임마누엘의 상태로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그 실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일차적으로 칠일 동안 정결예식이 치러지고 이차로 속건제를 시작으로 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가 드려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정상적인 선민으로서 삶의 현장으로 복귀되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이 환골탈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나병환자가 나으면 살아있는 새 두 마리를 준비하고 홍색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우슬초에 묶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백향목과 우슬초를 떼어내고 들판에서 새를 날려 보냅니다. 그리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하고 칠일 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팔일 째 말씀드렸던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식의 절차가 바로 선민이 영적인 나병환자의 상태, 아담타락이후에 거룩이 깨어진 저주의 상태로부터 환골탈태해서 거룩함에 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골탈태한 선민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늘을 나는 새로 살았어야 됩니다. 새는 땅에 내려와 앉고 나뭇가지에도 앉고 바위에 잠깐 머뭅니다.

그러나 새는 바위에 앉아있고 가지에 앉아있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새가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는 하늘을 날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개념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상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신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생각을 잉태하신 것으로 그 태를 빼앗아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을 잉태하고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시므로 마음이 언제나 날아올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땅에 기는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하늘을 나는 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잉태된 이 땅에서의 내 삶에 대한 개념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타락 후에 땅을 기는 짐승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을 따라서 땅을 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움이 생기고 거룩함이 깨어지고 원초적 평강이 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한 마리를 죽인다.'는 것은 새로 살아야 될 자들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는데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버리는데 이제는 짐승처럼 땅을 기면서 살지 말고 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새처럼 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제사인데 제사를 통해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이 하늘을 나는 새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변하려면 먼저 뼈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래서 환골탈태라고 했습니다.

땅을 기는 짐승의 뼈와 하늘을 나는 새의 뼈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포유류의 뼈는 뼛속에 골수가 들어있는데 새의 뼈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포유류는 내장이 길어요. 구절양장이라는 말처럼 양의 창자가 아홉 번을 돌 정도로 깁니다. 그런데 새의 내장은 방광조차 없고 그러므로 배설물을 담아둘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먹자마자 곧바로 최대한 빨리 배설작용이 간소화 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방광이 없고 내장이 짧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하는데 많은 양의 물과 독소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을 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병환자와 같은 영적상태로 땅을 기는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나는 새가 되려면 환골탈태가 돼야 하는데 뼛속과 뱃속이 비어야 합니다. 그 뼛속이 비고 뱃속이 비는 과정을 제사로 이루어내는 것이고 모습은 하늘을 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가 땅에 내려와 앉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을 나는 자들이 새라는 것이고 선민이고 타락 이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늘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보다 낫다는 것인데 천사들은 아예 하늘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늘을 나는 자들이므로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합니다. 그리고 몸이 있는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대한 개념, 하나님이 잉태

하신 그 태를 빼앗아서 사는 것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뼈도 비우고 내장도 비우고 방광도 없어야 됩니다.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좌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3:18-19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합니다.
'배를 섬긴다.'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뱃속에 담겠다는 것인데 새가 되려면 다른 짐승에 비해서 뱃속에 내장이 없다시피 해야 되고 뼈가 비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환골탈태해서 거룩함의 모습을 띠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새라는 것입니다. 새들로 지음 받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안에 잉태되어 있는 내 삶에 대한 그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인간들이 짐승으로 변해서 땅을 기어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름 받은 선민들은 다시금 환골탈태해야 되는데 환골탈태하게 해주는 역사가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 제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짐승으로 땅을 기어 다니고 땅에 있는 것들을 주워 먹고 사는 것을 평생의 과제로 삼고 있던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이 환골탈태해서 하늘을 나는 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뼛속'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담는 것을 말하는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마음이 뼛속까지 깊이 담기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 비우게 됩니다. 그래야 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땅의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늘을 나는 새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얽매인 것이 없이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새가 됩니다. 이렇게 환골이 되면 하늘로 날아오른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몸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잉태되고 있는데 하나님 속에 잉태되고 있는 그 태를 내가 받아서 이 땅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골탈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골한 이 속골에서 선골로 환골이 된 신선의 몸에 털이 나는 것처럼 본문에 모든 털을 다 밀고 칠일 동안 정결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칠일 동안'이라는 것은 창조의 과정이 칠일 동안 진행되는데 육일 동안과 안식일로 완결이 됩니다. 팔일 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새로운 창조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팔일 째'는 부활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다시 시작됨을 말합니다. 팔일 째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두 마리 새를 통해 보여주었던 정결예식에서 그려진 그 그림대로 새가 되어서 다시는 짐승 흉내를 내서 목이 비틀려져 죽음을 당해야 하는 잘못된 새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의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환골탈태의 실질적인 수행을 바로 제사를 통해서 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날마다 땅을 기는 짐

승적, 죄적 기질로부터 벗어나서 환골탈태해서 하늘을 나는 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땅을 기는 짐승으로 살지 말고 뼈를 비우고 뱃속을 비워서 땅에서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몸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의 개념, 하나님이 잉태하고 계시는 그 태를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진행되는 그러한 선민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로의 환골탈태 날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람들은 뼈를 깎아 환골탈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뼈를 깎는 고통을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생활화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통하여 환골탈태한 나의 모습을 스스로 보며 깜짝 놀라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